

## 9/14(화) 데살로니가전서 묵상 (13)

데살로니가전서 5:14-18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교훈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 미성숙한 성도들에 대한 영적 자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게으른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14절상,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서 ‘게으른 자’는 원어적으로 ‘행렬에서 떠난 자’는 뜻하며 군사적 용어입니다. 즉, 사회의 규율을 어기는 범법자와 같이 교회를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이전에 묵상한 대로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 보이는데 바울은 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다스리라’고 교훈합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도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이같은 권면을 합니다(딤후 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여기서 ‘멀리하라’는 것은 방치의 개념이 아니라 ‘치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방치한다면 구지 한 두번씩이나 이들을 훈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14절하,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원어적으로 ‘작은 (영)혼’이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어린 자들’을 뜻합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살전 4:3-7절에 지적한대로 죄와 유혹에 대해 육신의 힘이 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은 피차 간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묵상한대로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지상 교회 안에는 14절의 바울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상처받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대한 만큼 실망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시험 등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인내’입니다(갈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대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들은 우리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지만 예수님은 악은 선으로 그리고 원수는 사랑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편,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들(원수)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잘못을 묵인하고 무조건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갈 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른 교훈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과 훈계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자세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가지 뜻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살전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보다는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기뻐하라는 말입니다(롬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나라에 속하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기도를 위해 어떤 형식적인 기도문을 작성해서 읽고 일정한 시간에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듯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목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목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아프간을 위한 기도:** 2001년 9.11 사건을 계기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탈레반 정권을 무너트린 지 20년이 지난 2021년 8월 미군과 다국적군의 완전 철수로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탈레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20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미군 사망자 2천 500명, 동맹군 사망자 1천 100명, 아프간군 사망자 6만 6천명, 탈레반 사망자 5만 1천명이 발생하였고, 투입된 전쟁 비용은 최소 2조 달러이상 투입되었다.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국내외 정세가 혼란이 가중되고 악화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사회가 안정화되고, 남아 있는 소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며, 난민이나 특별기여자신분으로 해외로 떠난 아프간 이주자들이 잘 정착하며, 이들을 품어주는 교회와 국가가 많아지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구역을 위해 중보하자. 오늘은 노스헤이븐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카자흐스탄 이드림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하자.